

聖王의 大通寺 創建과 梁 武帝

蘇 鉉 淑*

目 次

- | | |
|---------------------------------|--------------------------------|
| I. 머리말 | Ⅲ. 성왕의 대통사 창건과 양 무제 |
| Ⅱ. 대통사 창건을 둘러싼 문제들-중국 사례를 통한 검토 | 1. 양 무제의 '대통' 改元과 백제 대통사 |
| 1. 연호를 차용한 寺名 | 2. 양 무제와 성왕: 계율을 통한 正法 政치를 꿈꾸다 |
| 2. 대통사의 창건 시점 | Ⅳ. 맺음말 |

국 문 요 약

『삼국유사』에 의하면, 웅진의 대통사는 신라 법흥왕이 양 무제를 위해 양 대통 원년, 즉 527년 건립했다. 그런데 이 기록은 당시 웅진 지역이 백제의 도성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많은 논쟁거리를 제공했다. 심지어 '웅진 대통사'의 존재 여부조차 부정되기도 했지만, 최근 대통사지로 전해지고 있는 공주시 반죽동에서 또다시 '大通'銘 와당이 정식 발굴됨으로써 백제 대통사의 존재가 확실해졌다.

본고는 그동안 대통사 창건과 관련해 많은 의문을 불러 일으켰던 세 가지 문제, 즉 연호를 채택한 사찰 이름의 가능 여부, 창건 시기, 창건 목적 등에 대해 중국의 사례를 통해 그 해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寺名의 경우, 6세기 전기 북위 도성 낙양에서 황제의 연호를 채택한 景明寺와 正始寺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양 무제의 연호를 채택한 대통사의 존재가 역사적으로 가능함을 확인했다. 사찰의 창건 시점에 관해서는 중국의 6세기 사례와 한반도 삼국시대의 創寺 기록을 분석, 문헌 속에서 언급한 창건 연대가 꼭 완공 시점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사찰의 이름이 정해진 시기도 창사 시점이 될 수 있음을 논증함으로써, 527년 창건설이 가능함을 제시했다.

양 무제는 동아시아에서 불교적 성왕, 즉 전륜성왕적 통치의 전범을 만들었다. 그는 황권에 대립했던 귀족 중심의 승단세력을 통제하고, 전륜성왕적 통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는데, 527년은 바로 이와 같은 무제의 이상을 실현해줄 同泰寺가 완공된 시점이다. 동태사 완공과 함께 무제는 이를 기념하여 연호마저 동태의 反語를 취해 대통으로 바꾸었다. 성왕의 대통사 창건은 무제의 이와 같은 정치적 전범을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성왕은 무제처럼 계율을 중시하여 謙益을 우대하고, 전륜성왕에 의한 호법통치를

* 원광대학교수

설한 『열반경』을 중시함으로써 국내 통치의 안정과 왕권 강화를 기도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사는 성왕의 전륜성왕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백제판 동태사’라 부를 만하다.

주제어 : 대통사(大通寺), 백제(百濟), 성왕(聖王), 양무제(梁武帝), 전륜성왕(轉輪聖王)

I. 머리말

“또 대통 원년인 정미년에 양나라 황제를 위해 웅천주에 사찰을 건립하고, 그 이름을 대통사라 하였다(웅천은 곧 공주로 당시 신라에 속했다. 그러므로 정미년이 아니라 중대통 원년인 기유년에 창건 되었을 것이다. 처음 흥륜사를 창건하던 정미년에는 다른 군에 사찰을 세울 만한 겨를이 없었다). 又於大通元年丁未, 爲梁帝創寺於熊川州, 名大通寺(熊川即公州也, 時屬新羅故也. 然恐非丁未也, 乃中大通元年己酉歲所創也. 始創興輪之丁未, 未暇及於他郡立寺也)”

대통사의 창건에 대해서는 『삼국유사』권3, 「原宗興法猷鬻滅身」조에 위와 같은 간단한 언급이 있을 뿐이다. 일연은 이차돈의 순교와 법흥왕의 불교 공인 등 신라 불교사를 길게 설명한 후 말미에 ‘527년 양 무제를 위해 지금의 공주인 웅천주에 대통사를 건립했다’는 『國史』에서 인용한 내용을 적고 있다. 그리고 注를 통해 당시의 웅천주가 신라의 영토였음을 언급하고 529년 창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527년 웅천주는 백제의 영토에 속했다. 그러므로 대다수 학자들에 의해 지적되었듯이 ‘대통사는 백제 성왕대(523~554)의 창건’으로 봐야 한다.¹⁾ 신라 최초의 사찰인 흥륜사의 창건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양 무제를 위해 건립된 사찰이라면 성왕에 의해 건립된 왕실사찰이 될 것이다.

문헌으로만 존재하던 대통사는 일제시대 일본인 가루베 지온[輕部慈恩]에 의해 공주 반죽동 일대에서 ‘大通’銘 기와가 발견됨으로써 그 실재가 확인되었다. 특히 와당의 연화문이 웅진시대 연화문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데다 남조에서 전래된 기술로 제작되었음이 밝혀지면서²⁾ 남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문헌 속 ‘웅진 대통사’의 실체 구명에 한걸음 다가서게 되었다. 부여 부소산성 등에서도 동일한 명문와가 출토되었고, 최근 ‘대통사지로 추정되어온’ 반죽동 일대에서 이루어진 구제성 발굴

1)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의 혼동에 대한 일연의 『삼국유사』 서술에 대한 논고는 조정철, 2018, 「공주 대통사와 동아시아 불교-『삼국유사』 ‘원종흥법염축멸신’의 비판적 검토-」, 『百濟文化』58을 참조.

2) ‘대통’명 기와는 뒷면의 회전물손질 흔적과 접합방식 등 남조에서 전래된 제와 기술로 제작되었다고 한다. 清水昭博, 2003, 「百濟『大通寺式』수막새의 성립과 전개-中國 南朝系 造瓦技術의 전파」, 『百濟研究』38, 61~62쪽.

에서 ‘대통’명 기와가 다시 출토됨으로써³⁾ 일연의 기록을 증명해 줄 웅진기 왕실사찰 대통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일연은 대통사가 ‘527년 양 무제를 위해 건립했다’고 적었는데, 527년은 양 무제가 연호를 普通에서 大通으로 바꾼 해이다. 무제는 보통 8년(527) 3월 6일 同泰寺에 행행하여 捨身을 한 후 궁으로 돌아와, 同泰의 反語를 취한 대통으로 연호를 바꾸었다.⁴⁾ 『삼국유사』의 기록대로라면, 성왕은 양 무제의 대통 개원에 부응해 무제를 위해 대통사를 건립한 게 된다.

그런데 이 기록과 관련해서 여러 의문들이 제기되었다. 즉 ‘527년 무제의 개원에 부응해 ‘대통’의 연호를 사용한 사찰이 백제에서 과연 건립될 수 있었을까’라는, 위 기록에 대한 회의론이다. 그 이유는 첫째, 527년 백제의 국내 사정이다. 이 해는 무령왕의 大夫人이자 성왕의 모후인 태비의 國喪 중이었다. 성왕이 모후의 국상 중에 양 무제를 위해 막대한 조영 비용이 드는 사찰을 창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회의론이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는 대통사의 성격과도 관련되어 있다. 둘째, 창건 시점이다. 양 무제는 동태사 완공 후인 527년 3월 6일 대통으로 개원했다. 그러므로 백제 성왕이 이와 같은 소식을 접한 후 대통사를 창건했다면, 이 사찰이 527년에 완성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에서다. 그리하여 창건 시점을 527년 이전으로 보는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셋째, 사찰의 이름이다. ‘중국 황제의 연호를 사용한 寺名이 과연 가능했을 것인가’란 의문이다.

본고에서는 중국의 사례를 통해 상술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먼저 사명과 창건 시점을 중국의 유사 사례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삼국유사』 기록의 신뢰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대통사와 양 무제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양 무제를 위해 건립’했다고 했지만, 대통사는 단순히 무제를 위해 건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왕권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던 성왕이 유사한 목표 아래 불교를 통치에 적극적으로 이용했던 양 무제의 불교정책에 공감하고 이를 모방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성왕에게는 527년까지의 양 무제의 불교 정책과 佛事, 그리고 동태사의 창건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제Ⅲ장에서는 성왕의 대통사 창건의 성격과 그 의의를 양 무제의 527년 이전까지의 불교정책과의 관련 속에서 찾아볼 것이다.

3) <연합뉴스> 2018년 4월1일 전자판(<https://www.yna.co.kr/view/AKR20180331053100005>)

4) “初, 帝創同泰寺, 至是開大通門以對寺之南門, 取反語以協同泰. 自是晨夕講義, 多由此門. 三月辛未, 幸寺捨身. 甲戌還宮, 大赦, 改元大通, 以符寺及門名.” [唐]李延壽 撰, 1997, 『南史』권7, 『梁本紀中』, 北京: 中華書局, 205쪽.

II. 대통사 창건을 둘러싼 문제들-중국 사례를 통한 검토

1. 연호를 차용한 寺名

기원 1세기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이후 사찰이 건립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런 사찰에 특별한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후한대 楚王 劉英(?~71)이 세운 사찰에 대해 晉의 袁宏은 ‘浮屠祠’⁵⁾로 적었으며, 劉宋의 范曄(398~445)은 후한 桓帝가 궁중에 세운 사찰을 ‘浮屠之祠’로,⁶⁾ 그리고 笮融(?~195)이 徐州에 건립한 사찰은 ‘浮屠寺’로 칭하였다.⁷⁾ 浮屠는 浮圖라고 쓰기도 했는데 佛(Buddha)의 음역어다.⁸⁾ 그러므로 상술한 사찰의 이름은 단지 ‘부처를 모시는 사당’이라는 보통 명사에 불과했다.

사찰에 고유한 이름이 붙기 시작한 것은 대략 3세기 晉代부터로 추정된다.⁹⁾ 이후 위진남북조시대까지 사찰의 이름은 낙양 白馬寺, 東晉 楊都의 嘉祥寺처럼 불교 전래나 祥瑞의 출현과 관련되거나, 장안의 西寺와 서주의 彭城寺처럼 방위나 소재지를 따라서 지어졌다. 또한 화엄사, 대승사, 반야사 등 불교 신앙 및 교리 등과 관련되거나, 부처나 보살, 천왕 등의 이름이 붙는 사찰도 많았다. 또한 江陵(荊州)의 辛寺나 북위 낙양의 高陽王寺¹⁰⁾ 등 사찰 건립과 관계된 사람의 성씨, 봉작, 관위 등으로 이름을 짓기도 했는데, 이는 權貴와 사족들의 建寺 및 捨宅爲寺 풍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편, 대승사상의 흥기로 국가와 불교의 관계가 밀접해지는 5세기 이후 治國과 관련한 사찰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建康의 興皇寺와 同泰寺, 그리고 북위 洛陽의 永寧寺, 북제 晉陽의 大興國寺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사찰은 대부분 황실사원이나 國家大寺다.

고대 삼국의 사찰 이름도 유사하다. 불법과 국가의 흥륭을 기리기 위한 興隆사와 왕흥사, 상서의 출현과 관련된 皇龍寺, 불교 신앙과 관련된 彌勒寺 등의 이름이 전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사는 특히 하계도 양 무제의 연호를 사용하여 지어졌다. 연호로 사명을 짓는 것은 고대 삼국에서 대통사가 유일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때문에 대통사가 양 무제의 대통 연호와 무관하며,¹¹⁾ 法華思想에서 유래하는 사명이라는 견해도 제시되었다.¹²⁾ 그런데 연호를 사찰의 이름으로 사용한 사례는 비록 소

5) “(永平13년 楚王)英好遊俠, 交通賓客, 晚節喜黃老, 修浮屠祠.” [晉]袁宏 撰, 周天游 校注, 2002, 『後漢紀校注』 권10, 『明帝紀』, 北京: 中華書局, 275쪽.

6) [晉]范曄 撰, 1997, 『後漢書』권30下, 『襄楷傳』, 北京: 中華書局, 1082쪽.

7) 『後漢書』권73, 『陶謙傳』, 2368쪽.

8) [北齊]魏收 撰, 1997, 『魏書』권114, 『釋老志』, 北京: 中華書局, 3026쪽.

9) 사찰의 이름에 대해서는 張弓, 1997, 『漢唐佛寺文化史(上)』,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34~239쪽을 참조.

10) “高陽王寺, 高陽王雍之宅也. 在津陽門外三里御道西, 雍爲爾朱榮所害也. 捨宅以爲寺.” [東魏]楊銜之 撰·周祖謨 校釋, 2000년판, 『洛陽伽藍記校釋』권3,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122쪽.

11) 避諱의 전통이 있는 봉건시대에 연호로 사명을 짓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조운재, 2011, 『百濟와 梁의 교섭과 大通寺』, 『韓國史研究』155, 290~294쪽.

12) 조경철, 2007, 『백제 웅진 大通寺와 大通信仰』, 『百濟文化』36, 31~43쪽; 조경철, 2011, 『백제 대통사 창건의 불

수지만 6세기 초 중국에 존재하고 있다.

북위 낙양성의 景明寺가 대표적이다. 동위(534~550)의 楊銜之가 편찬한 『洛陽伽藍記』에는 ‘북위 宣武帝(재위 499~515)가 경명 연간(500~503)에 건립했기 때문에 사찰의 이름을 경명사로 하였다’고 적고 있다.¹³⁾ 경명사는 황제가 세운 황실사찰로, 북위 희평 원년(516) 영녕사 9층탑이 건립되기 이전까지 북위 최고의 국가대사였다. 그리하여 입지와 규모가 낙양성의 다른 사찰과는 격이 달랐다. 북위 낙양성의 정남문인 宣陽門 밖 1리(약 500m) 지점, 낙양성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御道の 동쪽에 위치했다. 규모도 영녕사보다 커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500步”, 즉 낙양성 한 坊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다. 게다가 이곳은 북위 황제가 행하던 가장 중요한 정치적 불사이자 낙양성 최대의 불교행사인 行像의 출발지였다.

북위 행상은 원래 平城에서부터 행해졌던 것인데, 낙양 천도 이후 북위 왕조의 연례행사가 되었다. 천도 3년 후인 太和 21년(497), 효문제제는 ‘4월8일 京洛의 여러 불상이 閭闔宮에 들어와 황제의 散華를 받도록 하고, 해마다 이를 연례화하리라’는 조서를 내렸다.¹⁴⁾ 이와 같은 황제의 불교 연례행사 출발지가 경명 연간 경명사로 확정된 것이다. 매년 4월 7일, 尙書 祠部曹에 등록된 낙양성 내외의 사찰에 봉안되었던 천여 구 불상이 경명사를 출발해, 폭 40~65m의 중축대로인 어도 銅駝街를 따라 궁성을 향해 북상했다. 이 때 행상의 뒤에는 명승고덕은 물론, 낙양의 50여 만 성민이 뒤따랐다. 마침내 2km에 이르는 길을 행진한¹⁵⁾ 그들이 궁성 정문인 창합문에 이르면, 황제는 낙양성의 온 성민(여기에는 낙양에 온 이국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이 지켜보는 가운데 창합문 위의 2층 누각에서 광장과 어도에 몰려든 불상과 대중을 향해 산화를 했다. 이와 같은 산화의식은 북위 황제를 중심으로 한 천하질서관과 황제의 善政 실천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¹⁶⁾ 경명사는 이와 같은 낙양성 최대의 정치적 불교의례의 기점이었다.

연호를 사용한 또 하나의 사찰로 북위 낙양성의 正始寺가 있다. 정시사는 정시 연간(504~508)에 당시 侍中 崔光 등 百官이 시주를 해 건립했기 때문에 정시사란 이름을 얻었다.¹⁷⁾ 백관들이 황제

교사상적 배경, 『韓國史研究』155, 231~265쪽.

13) “景明寺, 宣武皇帝所立也. 景明年中立, 因以爲名. 在宣陽門外一里御道東, 其寺東西南北方五百步.” 『洛陽伽藍記校釋』권3, 97쪽.

14) “(太和二十一年)詔, 四月八日, 迎洛京諸寺佛像, 入閭闔宮, 受皇帝散華禮敬, 歲以爲常.” [宋]志磐 撰, 『佛祖統紀』권38, 「法運通塞志」, T49(T는 『大正新修大藏經』을 지칭한다. 이하 동일), No.2035, 355쪽中.

15) 창합문에서 선양문까지의 남북대로인 동타가는 현존하는 도로 길이가 1650m이고, 선양문에서 경명사까지의 거리가 500m에 이르므로 행상 행렬이 지나는 길이는 2km 남짓으로 추정할 수 있다. 동타가의 도로 길이와 폭 등은 錢國祥, 2007, 「序言」, 『漢魏洛陽城遺址研究』, 北京: 科學出版社, xiii쪽을 참조했다.

16) 북위 행상과 그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는 蘇鉉淑, 2013, 「皇權과 佛教儀禮: 北魏 行像과 梁의 無遮大會」, 『中國古中世史研究』29, 126~135쪽을 참조.

17) “正始寺, 百官等所立也. 正始中立, 因以爲名. 在東陽門外御道西, 所謂敬義里也. 里內有典虞曹, 簷宇精淨美於叢林. 衆僧房前, 高林對牖. 青松綠檉連枝交映, 多有枳樹, 而不中食. 有石碑一枚, 背上有侍中崔光施錢四十萬, 陳留侯李崇施錢二十萬, 自餘百官各有差少者, 不減五千已下, 後人刊之.” 『洛陽伽藍記校釋』권2, 73쪽.

의 연호를 사용한 이유는 황제를 위해 건립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대통사보다 훨씬 늦지만 연호를 사명으로 정한 대표적인 사례가 당대 開元寺다. 당 개원 26년(738) 현종은 “천하의 州郡에 각각 대형 사찰 한 곳을 세우고 연호를 사찰의 이름으로 삼아 ‘개원사’로 하라”는 조서를 내림으로써,¹⁸⁾ 중국 각지에 연호를 사용한 사찰이 건립되기에 이른다. 이런 사례들로 미루어 연호를 이름으로 채택한 사찰은 경명사처럼 황제의 정치적 불교행위가 이루어지는 국가대사의 성격을 가지거나, 정시사에서 보듯 황제를 위해 건립되었다. 그리고 당대 개원사처럼 황제가 전국에 건립한 국립사찰로서 국가의 통일적인 불교정책이 실행되는 지방 통제의 거점으로서 기능하기도 했다.

성왕은 재위 2년(524) 양 무제로부터 ‘持節都督百濟諸軍事綏東將軍百濟王’에 책봉되었다.¹⁹⁾ 이후 대통사 창건 이전까지 양으로의 遣使 기록은 없지만, 양 무제의 동태사 완공과 대통으로의 개원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양과 꾸준히 교류를 진행했음이 확실하다. 그리하여 비록 개로왕 18년(472) 이후 북위와 교류가 없었지만, 남조와의 밀접한 교류를 통해 북위 낙양성의 국가의 레인 행상은 물론, 행상의 출발지 경명사와 황제를 위해 건립한 정시사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배경 아래 연호를 사용한 사찰의 건립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2. 대통사의 창건 시점

대통사의 창건 시점에 대해 『삼국유사』는 527년과 529년의 두 연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 연은 527년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이 해 신라의 첫 사찰인 흥륜사 창건으로 또 다른 사찰을 건립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대통사 건립 시점을 2년 늦춰 양 中大通 원년인 529년으로 추정했다.

현재 대통사의 창건 시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²⁰⁾ 527년은 백제 무령왕의 대부 인이자 성왕의 모후인 태비의 국상 중이었다. 무령왕의 지석에 의하면 526년 11월 사망한 태비는 도성 서쪽에서 빈례를 치른 후 529년 2월 왕릉에 매장되었다. 그러므로 ‘국상 중에 양 무제를 위해 사찰을 창건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건 자연스럽다 하겠다. 그러나 대통사 건립이 왕권 강화를 목표로 한 정치적 활동에 무게가 두어진 것이라면, 국상과 무관하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즈음 백제가 양에 사신을 보낸 명확한 기록이 없어, 백제가 양 나라의 개원 소식을 신속하게 파악해 대통사를 창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되었다. 북위 낙양 영녕사와 함께 남북조

18) “開元二十六年，詔天下州郡各建一大寺。以紀年爲號，額曰開元寺。” [元]覺岸 撰，『釋氏稽古略』，T49，No.2037，827쪽上.

19) 『三國史記』권26, 「백제본기」4, ‘성왕 2년’조.

20) 대통사의 창건 시기에 대한 여러 논의와 이에 대한 비판은 朴賢淑, 2011, 「百濟 熊津時期的 정국과 大通寺 창건」, 『韓國史研究』155, 180~183쪽을 참조.

시대 최대의 황실사찰로 언급되는 동태사는 보통 2년(521) 9월 23일 공사가 시작되었다.²¹⁾ 무령왕은 바로 이 해 11월 양에 사신을 보냈으며, 다음 달인 12월 양으로부터 ‘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寧東大將軍’의 작호를 받았다.²²⁾ 그렇다면 521년의 견사를 통해 백제는 동태사의 창건 사실과 창건 배경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한편, ‘보통 5년(524) 무령왕이 죽자 양 무제는 조서를 내려 성왕을 ‘지절도독백제제군사수동장군백제왕’으로 삼았다.’²³⁾ 이로 미루어 기록에는 없지만 523년 무령왕 사후 백제는 왕의 죽음을 양에 알렸음이 틀림없다. 비록 시기는 늦지만 위덕왕이 北周의 北齊 점령 이후 북주에 사신을 보내거나 隋의 건국 직후 수에 사신을 보낸 정황 등을 볼 때,²⁴⁾ 백제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 중국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있었다.²⁵⁾ 그렇다면 양 무제의 동태사 완공과 대통으로의 개원 소식 역시 백제에 즉각 알려졌고, 성왕은 무제의 불교 정책을 모방하여 동태사와 같은 성격의 대통사를 건립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대통사의 창건[創寺]에 대한 논의들은 대통사의 창건을 완공일로 보고 진행된 측면이 강하다. 527년 3월 대통으로 개원했으므로, 그 소식을 듣고 대통사를 창건했다면 527년 완공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본 것이다. 그리하여 527년 낙성되었다 하더라도 창건 가람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무령왕이 양으로부터 작호를 받는 521년을 상한으로 추정하기도 했으며,²⁶⁾ 무령왕의 3년상이 끝나고 위덕왕이 태어나는 525년으로 설정하기도 했다.²⁷⁾ 그런데 문헌에서 언급된 ‘창사’의 시점은 꼭 완공일을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니다.

상술한 경명사는 선무제가 경명 연간 건립하여 경명사로 불렸지만, 막상 당시에는 사찰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물인 목탑이 존재하지 않았다. 목탑은 영녕사 9층탑이 완공(516년)된 이후인 正光 연간(520~524)에 비로소 靈太后에 의해 건립되었다.²⁸⁾ 그렇다면 선무제 당시 경명사는 비록 목탑은

21) [隋]費長房撰, 『歷代三寶紀』권3, T49, No.2034, 45쪽上.

22) 『삼국사기』권26, 「백제본기」4, ‘무령왕 21년’조.

23) “(普通)五年, 隆死, 詔復以其子明爲爲持節督百濟諸軍事綏東將軍百濟王”, [唐]姚思廉撰, 1997, 『梁書』권54, 「百濟傳」, 北京: 中華書局, 804쪽. 동일한 기록은 『南史』권79, 「백제전」에도 출현한다(1972쪽).

24) 『삼국사기』권27, 「백제본기」5, ‘위덕왕 25년·28년’조.

25) 남북조시대 중국 왕조에 보낸 표문의 격식을 연구한 양진성은 ‘백제나 왜의 표문이 중국 내지의 표문 격식과 가장 유사하며, 이는 중국식 표문체제를 제대로 소화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분석했는데(梁鎭誠, 2017, 「南北朝時期的國際關係에 대한 再考-國書의 授受事例를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141, 87~88쪽), 이런 사례를 통해서도 백제가 중국의 정보에 매우 정통했음을 알 수 있다.

26) 張守南, 2013, 「熊津~泗泚初 百濟의 南朝文化 受用 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33쪽.

27) 조경철, 2011, 앞의 논문, 254~259쪽; 조경철, 2018, 앞의 논문, 22~23쪽. 한편 清水昭博은 대통사 수막새가 남조계에 속함을 논증하고, 이를 토대로 대통사의 창건 시점을 백제가 양에 사신을 보낸 중대통 6년(534)으로 추정했다(2003, 앞의 논문, 65쪽).

28) “景明寺, 宣武皇帝所立也. 景明年中立, 因以爲名, ……至正光年中, 太后始造七層浮圖一所, 去地百仞.” 『洛陽伽藍記校釋』권3, 97~98쪽. 이 탑은 낙양성에서 영녕사의 9층탑에 버금가는 탑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7층 목탑이다.

없었지만 佛殿과 僧房 등만 갖추고도 낙양성 최대의 사찰로서 기능하고 있었고, 그 때문에 『낙양가람기』의 양현지는 경명 연간에 창사되었다고 적은 것이다. 낙양성의 永寧寺는 이와 다르다. 효문제의 낙양 천도 당시 이미 내성 안에 寺址가 확정되어 있었지만,²⁹⁾ 『낙양가람기』와 『歷代三寶紀』³⁰⁾ 등에서는 선무제의 태후인 영태후 호씨가 9층탑을 건립하기 시작한 희평 원년(516)을 영녕사의 창건 시점으로 적고 있다. 영태후는 神龜 2년(519) 8월 영녕사에 행행하여 9층탑에 올랐으므로,³¹⁾ 목탑 건립에 대략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후술하는 양 무제의 동태사도 사찰 조영 당시 착공의 첫 단계는 9층탑의 찰주를 세우는 것이었다.³²⁾ 그러므로 영녕사처럼 동태사도 이때를 창사 시점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동태사의 창건은 백제에도 널리 알려졌을 것이다.

삼국의 大寺 건립도 역시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신라 황룡사의 경우, 『삼국사기』는 진흥왕 14년(553)에 착공해 27년(566) 완공[畢功]했다고 한 반면,³³⁾ 『삼국유사』는 진흥왕 30년(569) 절 주위에 담을 돌림으로써 비로소 완공[畢]되었으며,³⁴⁾ 9층 목탑은 선덕왕 14년(645)에 건립되었다고 적고 있다.³⁵⁾ 또한 『삼국유사』는 황룡사의 창건[創寺]을 진흥왕 14년으로 적어³⁶⁾ 황룡사의 창건 연대를 진흥왕이 사찰 이름을 ‘황룡사’로 내려준 착공 시기로 보고 있다. 반면, 신라 최초의 사찰 흥륜사는 535년 본격적인 사원 조영이 시작되었지만, 『삼국유사』는 진흥왕 5년(544)의 완성시점을³⁷⁾ ‘흥륜사가 지어졌다[造]’고 하여 이때를 창사 시점으로 적고 있다.³⁸⁾

이처럼 6세기 고대 사찰, 특히 황실사찰이나 국가대사는 조영 기간이 매우 길었기 때문에 창사 시점을 착공과 완공 등으로 특정하지 않고, 혹은 착공 시점으로, 혹은 완성 시점으로 자유롭게 정했다. 그렇다면 대통 원년에 건립되었다는 대통사는 527년이 완공 시점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후술하는 것처럼 대통사는 성왕이 국가대사로 건립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527년 3월 양나라의 대통 개원에 부응해 이루어졌으므로 황룡사처럼 착공 당시 성왕에 의해 ‘대통사’란 사명이 수여되었을 것이다. 즉 『삼국유사』에서 황룡사의 착공 시기를 ‘창사’로 쓴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사의 ‘창사’ 역시 대통사의 착공 시기가 될 것이다.

29) ‘神龜 元年(518) 任城王元澄奏文.’ 『魏書』권114, 『釋老志』, 3044~3045쪽.

30) ‘孝明……改熙平元, 造永寧寺.’ [隋]費長房 撰, 『歷代三寶紀』권3, T49, No.2034, 45쪽上; “至孝明帝熙平元年, 靈太后胡氏造永寧寺起九層木浮圖.” 『歷代三寶紀』권9, T49, No.2034, 82쪽.

31) “(神龜)二年八月, 靈太后幸永寧寺, 躬登九層佛圖.” 『魏書』권55, 『崔光傳』, 1495쪽.

32) “九月二十三日建立同泰寺. 初豎刹, 帝親自幸, 百司盡陪.” 『歷代三寶紀』권3, T49, No.2034, 45쪽上.

33) 『三國史記』권4, 『신라본기』4, ‘진흥왕’조.

34) 『三國遺事』권3, 『홍법』, ‘황룡사장육’조.

35) 『三國遺事』권3, 『홍법』, ‘황룡사구층탑’조.

36) 『三國遺事』권3, 『홍법』, ‘황룡사구층탑’조.

37) 『三國史記』권4, 『신라본기』4 ‘진흥왕 5년’조.

38) 『三國遺事』권3, 『원종』, ‘원종홍법염축멸신’조.

Ⅲ. 성왕의 대통사 창건과 양 무제

1. 양 무제의 ‘대통’ 改元과 백제 대통사

성왕은 백제 불교의 융성기를 이끌었던 왕이다. 성왕의 이와 같은 치세에는 백제의 안정과 불교 융성의 기틀을 만든 무령왕(재위 501~523)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무령왕은 즉위 초기 고구려와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국내 정권의 불안정성을 양과의 교류를 통한 남조 문물의 적극적인 섭취를 통해 극복하고자 했다.³⁹⁾ 무령왕의 사후 왕위를 계승한 성왕은 선왕의 장례 기간 동안 고구려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524년에는 양으로부터 ‘지절도독백제제군사수동장군백제왕’의 작호를 받았다. 그리고 3년(525) 신라와 사신을 교환하며⁴⁰⁾ 한강 유역 회복의 기초를 다졌다. 이처럼 성왕의 집권 초기는 官制의 개편과 정비의 기초 작업이 이루어지고,⁴¹⁾ 새로운 정치세력을 이용해 지배체제를 재편하고 대외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백제의 중앙집권적 국가 확립⁴²⁾의 기초를 형성한 시기다. 대통사의 창건은 바로 이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성왕은 왜 국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제의 ‘대통’ 개원을 기념하여 대통사를 창건한 것일까. 이와 관련해서 먼저 ‘동태’와 ‘대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 무제의 ‘대통’ 개원은 동태사의 완공과 관련되어 있다. 무제는 521년 동태사를 건강성의 궁성인 臺城의 바깥 북쪽에 건립하며, 동태사를 쉽게 오가기 위해 궁성 북쪽에 문을 내고 동태의 반어를 취해 大通門이라 했다. 그리고 527년 동태사 완공과 함께 사신을 하고 환궁한 후 大赦하고 대통으로 개원했다.⁴³⁾

양 무제가 낙양 영녕사를 의식하고 건립한 국가대사 동태사는 무제의 불교치국 이념이 관철되고 실행되는 공간이었다. 그러므로 사명에도 그와 같은 무제의 이념이 반영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동태사 이전에 무제가 건립한 法王寺와 光宅寺의 경우, 법왕사는 天監 2년(503) 雍州에서 거병한 무제가 宋의 대군을 물리치기 위해 상륙했던, 즉 양 왕조의 창업이 시작된 ‘역사적’ 땅에 건립되었으

39) 『삼국사기』권26, 「백제본기」4, 「무령왕」조.

40) 『삼국사기』권26, 「백제본기」4, 「성왕」조.

41) 盧重國, 1978, 「百濟王室의 南遷과 支配勢力의 變遷」, 『韓國史論』4,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86쪽.

42) 양기석, 1990, 「百濟 聖王代의 政治改革과 그 性格-專制王權의 成立問題와 관련하여」, 『한국고대사연구』4, 75~103쪽.

43) “大通元年春正月乙丑,……初, 帝創同泰寺, 至是開大通門以對寺之南門, 取反語以協同泰, 自是晨夕講義, 多由此門. 三月辛未, 幸寺捨身. 甲戌還宮, 大赦, 改元大通, 以符寺及門名.” 『南史』권7, 「梁本紀 中」, 205쪽: “普通八年, 帝創同泰寺. 在宮後別開一門. 名大通門, 對寺之南門, 取反語以協同泰爲名. 帝晨夕講義, 多由此門. 寺在縣東六里. 帝初幸寺捨身, 改普通八年爲大通元年.” [唐]許嵩 撰, 張忱石 點校, 1986, 『建康實錄』권17, 「高祖武皇帝」, 北京: 中華書局, 681쪽. 한편 『梁書』에는 “三月辛未, 輿駕幸同泰寺捨身. 甲戌, 還宮, 赦天下, 改元.” (北京: 中華書局, 1997, 71쪽)의 내용만 실려 있을 뿐, 동태사 창건과 관련된 언급은 없다.

며,⁴⁴⁾ 양나라 승단의 최고 지휘자인 大僧正이 거주하는 광택사는 천감 6년(507) 무제의 옛집에 건립되었다.⁴⁵⁾ 두 사찰의 이름은 불교적 성왕인 전륜성왕의 관념과 중국의 전통적인 성왕 관념이 반영된 이름이다.

그렇다면 ‘동태’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동태’는 6세기 중국에서 비교적 널리 사용되던 단어였다. 남조의 경우, 顏延之(384~456)의 ‘華野同泰’,⁴⁶⁾ 남제에서 활동한 虞玩之(?~493년)의 ‘高卑同泰’⁴⁷⁾와 江淹(?~505)의 ‘華夷同泰’,⁴⁸⁾ 양과 陳에서 활동한 江總(519~594)의 ‘億兆與天地同泰’,⁴⁹⁾ 그리고 북위 高祖의 ‘天人同泰’ 등이 있다.⁵⁰⁾ 당대에도 道宣이 645년 편찬한 『續高僧傳』권26 「감통편·론」에 ‘上下同泰’의 표현이 출현한다.⁵¹⁾ 이런 사례에서 보듯 ‘동태’는 일반적으로 반대되는 두 개념이 ‘서로 통한다[融通]’는 ‘交泰’의 뜻으로 사용되었다.⁵²⁾ 다시 말해 ‘동태’는 ‘모두 하나로 융통한다’는 의미다. 이의 반어를 취한 ‘대통’이란 단어는 당시 어떤 의미로 이해되고 있었을까.

‘대통’의 용례는 『莊子』에서 처음 ‘大道’의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이후 불교는 물론 治水, 혹은 화폐의 이름으로도 사용될 만큼 다양하게 전용되었다.⁵³⁾ 일반적으로 ‘크게 통한다’, ‘잘 터득하다’의 뜻으로 쓰이며, 불교에서는 ‘佛法大通’⁵⁴⁾이라는 말에서 보듯 불법이 크게 유통되는 것을 의미하거나, ‘大通智勝佛’,⁵⁵⁾ ‘大通衆慧如來’,⁵⁶⁾ ‘大通願力佛’⁵⁷⁾처럼 여래의 이름으로 앞에 붙거나 『大通方廣經』처럼 경전의 앞머리에 붙기도 했다.

양 무제는 보통 4년(523) ‘大通錢’을 주조하여 유포시켰는데, 아마도 널리 유통되기를 염원하는 의미에서 선택했을 것이다. 동태사 남문의 맞은편에 대통문을 만들면서 ‘크게 통하게 하는’ 문이라고 한 것도 대통전과 유사한 의도가 작동했을 것이다. 그러나 동태사 완공과 함께 대통으로 개원한 것을 보면 이때의 대통은 좀 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이 확실하다. 양에서 찬술된 『대통방광경』

44) 諷訪義純, 1997, 『中國南朝佛敎史の研究』, 京都: 法藏館, 148~149쪽; 顏尙文, 1999, 『梁武帝』, 臺北: 東大圖書公司, 99~102쪽.

45) [唐]道宣 撰, 『廣弘明集』권16, 「光宅寺刹下銘并序」, T52, No.2103, 212쪽下.

46) [清]嚴可均 輯, 1999, 『全宋文』권36, 顏延之의 「庭誥」, 北京: 商務印書館, 356쪽.

47) [清]嚴可均 輯, 1999, 『全齊文』권18, 「陳時事表」, 『全齊文·全陳文』, 北京: 商務印書館, 180쪽.

48) [清]嚴可均 輯, 1999, 『全梁文』권35, 「大赦詔」, 北京: 商務印書館, 374쪽.

49) 『廣弘明集』권28, 「群臣請陳武帝懺文」, T52, No.2103, 332쪽上.

50) “後世宗爲太子, 高祖醺於清徽堂. 高祖曰, 皇儲所以纂歷三才, 光昭七祖, 斯乃億兆咸悅, 天人同泰, 故延卿就此一醺, 以暢忻情.” 『魏書』권53, 「李冲傳」, 1179쪽.

51) [唐]道宣 撰, 『續高僧傳』권26, 「論」, T50, No.2060, 677쪽中下.

52) 『易·泰』, “天地交泰, [王弼 注]: ‘泰者, 物大通之時也.’ 言天地之氣融通, 則万物各遂其生, 故謂之泰.”

53) 조경철, 2011, 앞의 논문, 242~245쪽.

54) [西晉]竺法護 譯, 『普曜經』권8, T3, No.186, 536쪽.

55) [後秦]鳩摩羅什 譯, 『妙法蓮華經』권3(T9, No.262)에도 십여 차례 출현한다.

56) [西晉]竺法護 譯, 『正法華經』권4(T9, No.263)에 십여 차례 출현한다.

57) [北魏]菩提流支 譯, 『佛說佛名經』권8, T14, No.440, 1560쪽.

은 남조는 물론, 북조, 그리고 8세기 일본에서까지 널리 유행한 僞疑經이다. 다시 말해 중국인에 의해 중국에서 찬술된 경전으로 당시 남조인의 불교인식을 드러내는 경전이다. 여기서 ‘방광’은 불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⁵⁸⁾ 나아가 대승사상을 지칭한다. 陳文帝는 이 경전과 관련된 참회의식에 사용하는 「大通方廣懺文」을 지었는데, 이 참문에서 “『대통방광경』을 說하고 삼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6천이 모두 一乘, 즉 대승으로 돌아가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⁵⁹⁾라고 하여 이 경전이 대승사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논하고 있다. 隋의 吉藏 역시 ‘방광’을 ‘대승경전의 通名’으로 해석하고 있다.⁶⁰⁾ 그렇다면 『대통방광경』의 ‘대통방광’은 ‘大道大乘’을 의미하며, 여기서 ‘대도’란 곧 ‘대승’이 된다.

한편 무제의 아들로 훗날 簡文帝가 되는 태자 蕭綱이 지은 「大法頌」에는 ‘양무제가 대통문을 나와 현실의 정토인 동태사로 들어가 강경을 했으며, 동태사를 건립한 이유가 중생을 인도하여 대승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적고 있다.⁶¹⁾ 여기서 대통문은 ‘정토이자 대승의 세계’인 동태사로 들어가는 출입구였다. 그렇다면 대통이란 연호는 ‘세상에 크게 통하는[대통] 대도[대통]’라는 이중의 의미를 갖게 되며, 대통으로의 개원은 ‘세상에 대도인 대승의 법을 크게 통하게 하겠다’라는 무제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동태사와 대통에 대한 무제와 황태자 소강의 인식은 남조인들의 공통된 인식으로 봐야 할 것이다. 521년 동태사 창건 당시에 대통문도 개통되었을 텐데, 동태사 창건이 6년에 걸친 大役事였으므로 ‘대통’ 및 ‘동태사’의 성격과 의미는 완공까지 지속적으로 선전되었을 것이다. 당시 양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백제에서도 이와 같은 남조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음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성왕은 동태사의 완공과 대통으로의 개원에 자극 받아 ‘백제관 동태사’로서 대통사를 건설, 대승사상에 입각한 통치를 행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크다. 대승사상에 입각한 통치란 후술하듯이 ‘正法에 의해 세상을 다스리는 正法성왕적 불교 통치’다.

2. 양 무제와 성왕: 계율을 통한 正法 정치를 꿈꾸다

‘성왕’이란 칭호가 왕 치세기에 국민들이 그를 지칭⁶²⁾한 것으로 미루어, 성왕이 불교의 正法성왕

58) “既而方廣東被, 教肆南移.” 王簡棲의 〈頭陀寺碑文〉, [梁]蕭統撰, 『文選』권59, 「碑文下·墓誌」: 王中의 〈頭陀寺碑文〉, 『全梁文下』권54, 593쪽.

59) “說大通方廣, 出三寶名號, 譬如六天總歸一乘.” 『廣弘明集』권28, T52, No.2103, 333쪽.

60) “大方廣者, 上來明別, 今次辨通, 如大方廣佛華嚴, 亦如大方等大集, 故知方廣是大乘經之通名也, 所以須通者, 或恐物疑勝鬘所說, 非方等之例, 是故今明勝鬘所說即是方廣, 方廣者, 依法華論第三名大方廣, 謂無礙大乘門, 隨順眾生根, 住持成就故, 此意通明大乘門無礙, 故名方廣, 言別釋者, 理正曰方, 文富稱廣, 又一乘無德不包曰廣, 離於偏邪稱方, 古注云, 真解無偏爲方, 理包無限稱廣.” [隋]吉藏, 『勝鬘寶窟』, T37, No.1744, 4쪽(밑줄은 필자).

61) 『廣弘明集』권20, 「大法頌」, T52, No.2103, 240~241쪽.

62) “聖王, 諱明禮, 武寧王之子也, 智識英邁, 能斷事, 武寧薨, 繼位, 國人稱爲聖王.” 『三國史記』권26, 「백제본기」 4, ‘성왕즉위년’조.

을 지향하고 있었음은 확실하다. 轉輪聖王(전륜왕, 운왕, Cakravartin King)은 불교의 성왕으로서, 대승사상에 입각한 ‘종교적 신앙심’, 즉 자비심을 가지고 불법[正法]에 의해 통치하는 法王이다. 성왕은 집권 초기 왕권을 확립하고 ‘强盛百濟’⁶³⁾를 유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불교적 이념에 근거한 전륜성왕적 통치를 행하고자 했을 것이며, 당시 중국의 전륜성왕으로서 불교치국책을 펼치고 있던 무제의 정책은 그의 전범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동태사의 완공 이전 양 무제의 불교치국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 무제(464~549)는 승불황제로서 천감 원년(502)에서 太淸 3년(549)까지 거의 반세기 동안 양을 통치하였으며, 그의 불교적 치국인 ‘전륜성왕적 통치 행태’는 중국은 물론 이웃 제왕들의 전범이 되었다. 남조는 북조와 달리 귀족 출신의 승려들로 구성된 승단의 세력이 매우 강력했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 대처하고 황권을 강화하기 위해 불교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무제의 불교정책은 대략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천감 연간(502~519)으로, 승단을 무제 중심 구도로 재편하는 시기다. 이때는 불서 편찬, 역경, 주해사업 등 불교 義學 연구에 중점이 두어졌다. 제2기는 불교의 학적 작업이 대략 마무리되는 천감 말기부터 대통 원년(527) 동태사 창건 이전까지다. 菩薩戒 受戒와 斷酒肉文의 제정, 그리고 계율의 정리 등을 통해 보살사상의 실천과 승단 통제를 본격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며, 이 시기를 전후해 무제는 황실 성원들로부터 전륜성왕으로 찬미되기 시작한다. 마지막 제3기는 불교적 성왕인 전륜성왕으로서의 이미지 작업을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단계로, 동태사 창건 이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다.

백제의 대통사 창건이 527년이므로 대통사의 성격과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제의 1기와 2기를 주목해야 한다. 특히 무제의 제1기 정책이 남조적 특색에서 기인하는 승단과의 협력에 맞춰져 있다면, 제2기는 협력을 넘어 승단 통제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대승적 통치를 지향하고 제3기 활동의 중심이 된 동태사를 건립하던 시기였으므로,⁶⁴⁾ 제2기의 정책이 성왕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제2기에 행해진 무제의 대표적인 불교치국책은 계율의 강조다.⁶⁵⁾ 불교 의학 연구 등을 통해 승단을 재편하고, 불교 교단의 지도자로서 황권의 위상을 굳힌 무제는 천감 말기부터 본격적으로 승단 통제 정책을 실시한다. <단주육문>을 제정,⁶⁶⁾ 많은 승려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승려의 육식과 음주를 금지함으로써 승단 통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관철했다. 그리고 몸소 계율 관련 경전을 편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계율의 엄수를 강조했다.

63) 『三國史記』권26, 「백제본기」4, ‘무령왕 21년’조.

64) “(보통 2년)九月二十三日建立同泰寺. 初豎刹, 帝親自幸, 百司盡陪.” 『歷代三寶紀』권3, T49, No. 2034, 45쪽 상.

65) 무제의 제2기 불교정책은 蘇鉉淑, 2009, 「梁 武帝의 佛教政策」, 『韓國古代史探究』2, 138~146쪽을 참조하였다.

66) <단주육문>은 대략 천감 말년(519)에서 보통 4년(523)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諷訪義純은 천감 16년(517)에서 보통 4년(523)으로(1997, 앞의 책, 54쪽), 顏尙文은 보살계 수계 이후에서 보통 4년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顏尙文, 1999, 앞의 책, 228~231쪽).

계율의 강조와 관련해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천감 18년(519) 4월 8일 무제가 대승 보살계를 받은 것이다.⁶⁷⁾ 보살계의 수계는 전륜성왕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⁶⁸⁾ 보살계를 받은 황제는 佛菩薩로부터 직접 부처의 본원력과 불가사의한 힘을 얻고 여러 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⁶⁹⁾ 보살계를 받은 황제는 대승 계율인 十善으로 천하를 통치해야 하는데, 이는 무력이 아닌 정법에 의한 통치를 의미한다. 이런 정법정치야말로 불교정전에서 언급한 전륜성왕이 해야 하는 통치의 근본적인 모습이었다.⁷⁰⁾ 佛陀跋陀羅(359~429)가 번역한 『大方廣佛華嚴經』권27 「十地品」에 “十善道를 具足하였으므로 전륜성왕으로 불린다”라고 하였으며,⁷¹⁾ 북위 말 낙양에서 번역된 『大薩遮尼乾子所說經』에도 십선과 전륜성왕의 관계가 설명되어 있다. 후자는 전륜성왕의 통치사상을 말한 경전 가운데 하나로, 호법왕인 윤왕의 중요한 일로 십선을 들고 있다.⁷²⁾ 십선이란 不殺生, 不偷盜, 不邪淫, 不妄語, 不惡口, 不兩舌, 不綺語, 不貪慾, 不瞋恚, 不邪見 등의 열 가지로,⁷³⁾ 황제가 십선으로 통치한다는 것은 모든 사부대중에게 불교의 계율을 지킬 것을 강제하는 것이다. 무제의 계율 중시는 주로 승단을 겨냥했지만, 그 궁극적 목적은 승단 통제를 통해 실현되는 황제(전륜성왕)의 정법정치였다. 무제는 ‘보살계 수계 이후 몸소 보살도를 실천하며 이를 민간으로까지 확대하고자 했고, 그 효과는 실제 민의 자발적 보시 등으로 나타나기도 했다.’⁷⁴⁾

무제가 계율을 중시한 것과 관련해 주목할 것은 『열반경』에 대한 관심이다. 『열반경』은 ‘一切衆生

67) 『續高僧傳』권6, 「慧約傳」, T50, No.2060, 469쪽中. 이밖에 『南史』권6, 「梁本紀 上」(197쪽)과 『續高僧傳』권5, 「法雲傳」(T50, No.2060, 464쪽下) 등에도 양 무제의 보살계 수계 관련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한편 무제의 〈捨道奉佛文〉과 관련해 무제가 이미 천감 3년 4월8일 보살계를 받았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선학들의 연구에 의해 ‘천감 3년 사도봉불’은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천감 3년의 보살계 수계 또한 역사적 사실이 아닐 것이다(諏訪義純, 1997, 앞의 책, 87~88쪽).

68) 高正美는 보살계를 받는 것은 ‘전륜성왕으로서 등극하는 의식’이라고 하여 보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高正美, 2003, 『從天王傳統到佛王傳統—中國中世佛教治國意識型態研究』, 香港: 商周出版, 167~168쪽). 그러나 보살계와 전륜성왕의 관계가 밀접했음은 확실하지만 남북조시대와 수의 황제들은 보살계를 여러 번 받았으므로 보살계 의식을 전륜성왕의 등극 의식으로 보기는 어렵다.

69) 顏尙文, 1999, 앞의 책, 170~190쪽.

70) 양 무제 이후 북제의 문선제, 진의 문제와 선제, 수 문제와 양제, 당 태종 등이 보살계를 받고 이를 잘 지켰으며, 나아가 인민에게도 보살계 수지를 강조하고 보시에 앞장서는 등 대승사상을 실천했다. 흉미롭게도 이들 대부분은 전륜성왕으로 찬미되었다. 이처럼 6세기에서 7세기 초에 걸쳐 중국에서는 대승사상과 전륜성왕 통치이념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표현 형태는 각 왕조마다 차이가 있다.

71) T9, No.278, 572쪽中.

72) T9, No.272, 330쪽中. 시기는 약간 늦지만 수 문제의 글과 수대 승려 彦琮의 〈福田論〉, 초당 釋明槃의 〈決對傳爰廢佛法僧事并表〉, 『辯正論』卷4 등에서도 윤왕과 십선의 밀접한 관계를 논하고 있어, 이런 관념이 당시 널리 퍼져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歷代三寶紀』권12, T49, No.2034, 107쪽; 『廣弘明集』卷25, T52, No.2103, 282쪽中; 『廣弘明集』卷12, T52, No.2103, 173쪽中; T52, No.2110, 513쪽下).

73) 『望月佛教大辭典』第3卷, 東京: 世界聖典刊行協會, 1974년 개정1판, 2282~2283쪽.

74) 蘇鉉淑, 2010, 「梁 武帝와 同泰寺」, 『佛教學報』54, 159~160쪽.

悉有佛性'이라는 중생 평등과⁷⁵⁾ 부처가 현재세에 항상 住하여 중생을 구제한다는 '佛身常住'를 역설한⁷⁶⁾ 대표적 대승경전이다. 무제가 『열반경』을 중시했던 이유는 이 경전이 계율과 보살행을 통한 정법정치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었다.⁷⁷⁾ 게다가 『열반경』에는 정법에 의해 통치하는 왕이 '非法'을 행하는 사부대중을 엄하게 처벌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⁷⁸⁾ 이를 토대로 황제는 재가자와 출가자 모두를 계율을 통해 통제할 수 있었다. 계율에 의한 정법통치란 앞에서 언급한대로 전륜성왕의 통치행위였다. 그리하여 무제는 『열반경』에 대한 주해 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천감 연간에 고승대덕에게 『大般涅槃子注經』72권을 편찬케 하고 『大般涅槃義疏』를 짓게 했으며, 무제 스스로 이 두 경전에 주해를 한 『制旨大般涅槃經講疏』를 짓기도 했다. 또한 동태사 완성 이후에는 사부대중을 대상으로 몸소 『열반경』을 강의했다.

양 무제의 『열반경』에 대한 관심과 그 의미를 백제에서도 이미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무령왕의 태자 純陀가 주목된다. 513년 8월 사망한 태자⁷⁹⁾의 이름 순타는 『열반경』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다. 『대반열반경』(北涼 曇無讖 번역)과 『蓮華面經』(수나라 那連提耶舍 번역) 등에 의하면 순타는 석가여래가 열반하기 전 마지막으로 식사를 공양한 인물이다. 즉 공양이라는 보시를 통해 대덕을 쌓은 인물이다. 『열반경』에서는 순타가 재가신자면서도 보살의 경지에 오른, 즉 미래의 성불이 약속된 자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하여 무제의 칙명으로 寶亮이 편찬한 『大般涅槃經集解』와 寶唱 편찬의 『經律異相』(516년)에 그의 이름이 수십 차례 언급되었으며,⁸⁰⁾ 동시기 僧祐 편찬의 『釋迦普』에도 집중적으로 출현한다. 무령왕은 무제가 『열반경』을 중시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런 배경 아래 태자 이름을 순타로 지었을 것이다. 성왕이 대통사 창건 이후 양에 경전 하사를 부탁하면서 '涅槃等經義'라고 하여 『열반경』을 가장 앞에 놓았던 것도⁸¹⁾ 이와 같은 배경에서 가능했다.

전륜성왕을 지향했던 성왕 역시 계율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이능화는 『朝鮮佛教通史』에서 「彌

75) 船山 徹, 1995, 「六朝時代における菩薩戒の受容過程-劉宋・南齊期を中心に-」, 『東方學報』67, 京都大, 110쪽.

76) 平川彰, 1970, 『淨土思想と大乘戒』, 東京: 春秋社, 368~369쪽.

77) 무제는 『열반경』 이외에 『반야경』도 중시했는데, 두 경전과 정법정치의 관계에 대해서는 任繼愈, 1980, 「南朝晉宋間における般若・涅槃學說の政治的役割」, 『漢唐佛教思想論集』, 東京: 東方書店, 31~58쪽; 高英吉, 2007, 「梁武帝の政教結合思想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5~77쪽; 길기태, 2006, 「백제 사비시대의 불교신앙 연구」, 서경출판사, 95~108쪽을 참조.

78) 橫超慧日, 1979, 「梁の武帝の佛教觀」, 『森三樹三郎博士頌壽記念 東洋學論集』, 東京: 朋友書店, 1208쪽.

79) 『日本書紀』권17에서는 태자의 이름을 '淳陀'라 썼는데, 『續日本紀』延曆 8년 12월 丙申條에는 '무령왕의 아들 純陀太子'로 기록되어 있다(崔根泳 등 編譯, 1994, 『日本六國史 韓國關係記事 譯註』,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71쪽).

80) 寶亮이 撰한 『大般涅槃經集解』(T37, No.1763) 권4와 권5는 '純陀品'이며, 寶唱 등이 撰한 『經律異相』권4(T53, No.2121) 열반 관련 부분에 순타가 집중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81) "中大通六年大同七年, 累遣使獻方物, 並請涅槃等經義毛詩博士并工匠畫師等, 並給之." 『南史』권79, 「백제전」, 1973쪽.

勒佛光寺事蹟』을 인용, 해동 율종의 개조로 불리는 謙益이 성왕 4년, 즉 대통사 창건 1년 전인 526년 중인도에서 5년 동안의 학업을 마치고 귀국하였으며, 당시 성왕에게 환대 받았음을 기록하고 있다. 성왕은 겸익과 인도 출신 倍達多三藏을 교외까지 나아가 맞아 이들을 興輪寺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국내의 이름난 승려 28인을 불러 겸익법사와 함께 律部 72권을 번역하도록 한 후, 친히 律疏의 序를 쓰고 이를 새겨 널리 보급하려 했다.⁸²⁾ 성왕의 계율에 대한 관심과 계율의 장려는 승단에 대한 왕권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국가적 기강을 확립하려는 데 주안점이 있었음이 확실하다.⁸³⁾ 이처럼 계율이 가진 사회 통제 기능에 주목할 수 있었던 것은 성왕이 이미 양 무제의 불교 통치를 통해 그 효용성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사서의 기록과 출토 유물은 성왕대에 이르러 율령제적 질서가 강하게 관철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⁸⁴⁾ 이와 같은 율령제적 질서의 관철은 불법에서 계율의 강조와 밀접하게 연동되고 있다. 율령제 질서의 확립에 대한 성왕의 의지는 불교에서 사부대중 모두가 계율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불교국가가를 지향케 했을 것이며, 이는 양 무제가 행한 2기의 불교 통치정책의 내용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대통사의 건립은 바로 성왕의 계율을 통한 통치, 즉 전문성왕적 대승 통치를 실현하기 위한 공간으로 창건되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다시 말해 국상중임에도 불구하고 집권 초기에 대통사를 창건한 것은 단순히 ‘무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⁸⁵⁾ 그와 같은 명목 아래 무제와 같은 전문성왕적 통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널리 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치 동태사의 창건이 무제의 전문성왕적 통치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신호탄이었던 것처럼 말이다.

IV. 맺음말

백제 웅진시대 도성에 건립된 대통사는 여러 가지 역사적 상황을 고려할 때, 527년 성왕에 의해 건립된 국가대사일 가능성이 크다. 521년 시작된 양 무제의 동태사 건립의 의미를 잘 알고 있던 성

82) “彌勒佛光寺事蹟云, 百濟聖王四年丙午, 沙門謙益, 矢心求律, 航海以轉至中印度常伽那大律寺, 學梵文五載, 洞曉竺語, 深攻律部, 莊嚴戒體. 與梵僧倍達多三藏, 齋梵本阿曇藏五部律文歸國. 百濟王, 以羽葆鼓吹, 郊迎, 安于興輪寺. 召國內名釋二十八人, 與謙益法師, 譯律部七十二卷. 是爲百濟律宗之鼻祖也. 於是, 曇旭惠仁兩法師, 著律疏三十六卷, 獻于王. 王作毘曇新律序, 奉藏于台耀殿, 將欲剞劂廣佈, 未遑而薨.” 李能和, 『朝鮮佛教通史』, 『大藏經補編』31冊, No.170, 293쪽上.

83) 盧重國, 1978, 앞의 논문, 90쪽.

84) 張守南, 2013, 앞의 논문, 131쪽.

85) 성왕의 대통사 창건을 무제의 불교정책을 모방한 성왕의 왕권강화책의 일환, 혹은 이를 통한 백제의 불국토 건설로 본 연구성과로는 정재윤, 2009, 「5~6세기 백제의 南朝 중심 외교정책과 그 의미」, 『百濟文化』41; 朴賢淑, 2011, 앞의 논문; 서정석, 2011, 앞의 논문; 장수남, 2012, 「백제 성왕의 즉위와 왕권 강화과정」, 『韓國上古史學報』75 등이 있다.

왕이 무제의 동태사 완공과 대통으로의 개원에 발맞추어 집권 초기 국내정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대통사를 창건했을 것이다. 또한 북위 경명사와 정시사처럼 연호를 사용한 국가대사나 황실을 위한 관리들의 발원 사찰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모방해 무제를 위한 사찰로서 무제의 연호를 사용한 사찰을 건립했을 것이다. 이는 백제가 남조는 물론, 정식 외교 관계를 갖지 않았던 북조에 대해서도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통사의 건립은 이와 같은 백제의 신속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왕은 양 무제의 동태사 건립의 의미, 그리고 동태사를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무제의 전륜성왕적 통치 이념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무제는 불교를 이용해 귀족 중심의 승단세력을 통제하고 전륜성왕적 통치를 이루어내는데, 이와 같은 무제의 불교적 통치는 국내 통치의 안정과 왕권 강화를 기도하고 있던 성왕에게 훌륭한 전범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겸익을 우대하여 율부를 번역케 하고 서문을 쓰는 등, 성왕 역시 무제처럼 계율을 강조하고 전륜성왕에 의한 호법통치를 설한 『열반경』에 관심을 보였다. 나아가 동태사 창건을 모방해 정법정치가 이루어지는 공간, 즉 ‘백제판 동태사’로서 대통사를 창건하여 자신이 전륜성왕임을 백제인들에게 선포하고자 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사서, 문집, 佛典, 사진

金富軾, 『三國史記』

一然, 『三國遺事』

李能和, 『朝鮮佛教通史』, 『大藏經補編』31冊, No.170.

崔根泳 등 編譯, 1994, 『日本六國史 韓國關係記事 譯註』,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晉]範曄 撰, 1997, 『後漢書』, 北京: 中華書局.

[晉]袁宏 撰, 周天游 校注, 2002, 『後漢紀校注』, 北京: 中華書局.

[東魏]楊銜之 撰·周祖謨 校釋, 2000년판, 『洛陽伽藍記校釋』,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北齊]魏收 撰, 1997, 『魏書』, 北京: 中華書局.

[唐]李延壽 撰, 1997, 『南史』, 北京: 中華書局.

[唐]姚思廉 撰, 1997, 『梁書』, 北京: 中華書局.

[唐]許嵩 撰, 張忱石 點校, 1986, 『建康實錄』, 北京: 中華書局.

[清]嚴可均 輯, 1999, 『全宋文』, 北京: 商務印書館.

[清]嚴可均 輯, 1999, 『全齊文』, 北京: 商務印書館.

[清]嚴可均 輯, 1999, 『全梁文』, 北京: 商務印書館.

[西晉]竺法護 譯, 『普曜經』, T3, No.186.

[西晉]竺法護 譯, 『正法華經』, T9, No.263.

[東晉]佛陀跋陀羅 譯, 『大方廣佛華嚴經』, T9, No.278.

[後秦]鳩摩羅什 譯, 『妙法蓮華經』, T9, No.262.

[北魏]菩提流支 譯, 『大薩遮尼乾子所說經』, T9, No.272.

[北魏]菩提流支 譯, 『佛說佛名經』, T14, No.440.

[梁]寶亮 撰, 『大般涅槃經集解』, T37, No.1763.

[梁]寶唱 等撰, 『經律異相』, T53, No.2121.

[隋]吉藏, 『勝鬘寶窟』, T37, No.1744.

[隋]費長房 撰, 『歷代三寶紀』, T49, No.2034.

[唐]道宣 撰, 『續高僧傳』, T50, No.2060.

[唐]道宣 撰, 『廣弘明集』, T52, No.2103.

[宋]志磐 撰, 『佛祖統紀』, T49, No.2035.

[元]覺岸 撰, 『釋氏稽古略』, T49, No.2037.

『望月佛教大辭典』第3卷, 東京: 世界聖典刊行協會, 1974년 개정1판.

2. 단행본

古正美, 2003, 『從天王傳統到佛王傳統-中國中世佛教治國意識型態研究』, 香港: 商周出版.

길기태, 2006, 『백제 사비시대의 불교신앙 연구』, 서경출판사.

顏尙文, 1999, 『梁武帝』, 臺北: 東大圖書公司.

張弓, 1997, 『漢唐佛寺文化史(上)』,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錢國祥, 2007, 『漢魏洛陽城遺址研究』, 北京: 科學出版社.

諏訪義純, 1997, 『中國南朝佛教史の研究』, 京都: 法藏館.

平川彰, 1970, 『淨土思想と大乘戒』, 東京: 春秋社.

3. 논문

高英吉, 2007, 「梁 武帝의 政教結合思想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盧重國, 1978, 「百濟王室의 南遷과 支配勢力의 變遷」, 『韓國史論』4,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朴賢淑, 2011, 「百濟 熊津時期的 정국과 大通寺 창건」, 『韓國史研究』155.

서정식, 2011, 「백제 熊津王都和 大通寺址」, 『韓國史研究』155.

船山徹, 1995, 「六朝時代における菩薩戒の受容過程-劉宋·南齊期を中心に-」, 『東方學報』67, 京都大.

蘇鉉淑, 2009, 「梁 武帝의 佛教政策」, 『韓國古代史探究』2.

蘇鉉淑, 2010, 「梁 武帝와 同泰寺」, 『佛教學報』54.

蘇鉉淑, 2013, 「皇權과 佛教儀禮: 北魏 行像과 梁의 無遮大會」, 『中國古中世史研究』29.

양기석, 1990, 「百濟 聖王代의 政治改革과 그 性格-專制王權의 成立問題와 관련하여」, 『한국고대사연구』4.

梁鎮誠, 2017, 「南北朝時期的 國際關係에 대한 再考-國書의 授受事例를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141.

任繼愈, 1980, 「南朝晋宋間における般若·涅槃學說の政治的役割」, 『漢唐佛教思想論集』, 東京: 東方書店.

張守南, 2013, 「熊津~泗泚初 百濟의 南朝文化 受用 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장수남, 2012, 「백제 성왕의 즉위와 왕권 강화과정」, 『韓國上古史學報』75.

정재운, 2009, 「5~6세기 백제의 南朝 중심 외교정책과 그 의미」, 『百濟文化』41.

조경철, 2007, 「백제 웅진 大通寺와 大通信仰」, 『百濟文化』36.

조경철, 2011, 「백제 대통사 창건의 불교사상적 배경」, 『韓國史研究』155.

조경철, 2018, 「공주 대통사와 동아시아 불교-「삼국유사」 '원종흥법염촉멸신'의 비판적 검토-」, 『百濟文化』58.

조윤재, 2011, 「百濟와 梁의 교섭과 大通寺」, 『韓國史研究』155.

清水昭博, 2003, 「百濟「大通寺式」수막새의 성립과 전개-中國 南朝系 造瓦技術의 전파」, 『百濟研究』38.

橫超慧日, 1979, 「梁의 武帝의 佛敎觀」, 『森三樹三郎博士頌壽記念 東洋學論集』, 東京: 朋友書店.

The Construction of Daetongsa Temple by King Seong of Baekje and the Emperor Wu of Liang Dynasty

So, Hyunsook
(Wonkwang University)

According to the *Samguk-Yusa*, the Daetongsa Temple in Woongjin(熊津) was built in 527 by the Silla King Beopheung(法興) for Emperor Wu of Liang Dynasty. But at that time, Woongjin was the capital of Baekje. This is not consistent with the historical facts, which made us question the reliability of the records. Even the existence of the “Woongjin Daetongsa Temple” mentioned in the records was denied. However, a tile with the name of ‘Daetong’ has been discovered again at Banzook-Dong in Gongju City, which is known as the site of the Daetongsa Temple.

This research aims to solve three problems that have raised many questions about the construction of Daetongsa Temple. In other word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ith Chinese cases, I wanted to explore whether the name of the temple adopted the title of an emperor’s reign was possible, and when the temple was built, and what was the purpose of the temple.

At the first half of the sixth century in China, there was a case of using the title of an emperor’s reign as the names of temples. It is Jingming-si(景明寺) and Zhengshi-si(正始寺), which were built in Luoyang(洛陽), the capital of the Northern Wei Dynasty. If so, the records of the *Samguk-Yusa*, which describe the construction of the Daetongsa Temple using the annal of Liang Wudi, are reliable.

On the Daetong Temple’s construction, I analyzed the cases of China’s 6th century and the Three Kingdoms Period of the Korean Peninsula.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time of construction referred to in the literature does not necessarily refer to the time of completion, and that the time of make naming of the temple could also be the time of construction. Thus, the record of the *Samguk-Yusa*, which said the Daetong Temple was founded in 527 is very reliable.

In East Asia, Emperor Wu of the Liang Dynasty made a model of the Buddhist holy king, i.e. Cakravartin King(轉輪聖王). He controlled a group of monks from the nobility who were opposed to the royal authority, and he steadily laid the groundwork for the Cakravartin

King's rule. The year 527 was the time of completion of the Tongtai-si(同泰寺) to realize this vision of anarchy. With the completion of the temple, he even changed his reign name to Datong(大通), which has meaning with Tongtai-si Temple.

It can be said that the King Seong's creation of the Daetong Temple was an imitation of this political practice of the Emperor Wu. He also favored Buddhist monks who were as bright in Buddhist doctrine, and valued Nirvana Sutra as the Emperor Wu. This Sutra highlights the rule of law by Cakravartin King. Through these King Seong tried to pray for the stabilization of domestic rule and the strengthening of his royal authority. In this sense, Daetong Temple was built as a place where King Seong's Cakravartin King royal activities take place.

Key words : Daetongsa Temple, Baekje, King Seong, Emperor Wu of Liang Dynasty, Cakravartin King